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 10 No. 2 (2008) pp.39~56

여성 Tattoo의 의미변화 연구

방 수 란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Study on the Change of Significance in Female Tattoos

Soo-Ran Bang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2007. 10. 4. 접수; 2008. 8. 11. 수정; 2008. 8. 26. 채택)

Abstract

It i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tattoos has been rapidly spreading among women of modern years. The extremism of feminine ornaments, and pricking and piercing of the skin seem to have deep connection with women's consciousness changing to being independent, active and aggress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quality of today's women, who appears emblematically through tattoo, and to search out the whole aspect and keynote of female tattoos. The methods of research are by exami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oncept and history, considering the type and significance of ethnic female tattoos, and then comparing with the symbolism of today's female tattoos.

The sphere is limited to women's tattoos from ancient times to today's modern life, examined from large portions of Africa, Asia, Australasia, the Americas, and Arctic reg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had been reflected in female tattoos in the past. First, incantation, tribe, adult age, adornment, marital status, domestic ability and sex distinction, where among others, the incantatory, ornamental symbol, and domestic sign were representatives. Second, the most popular body parts for having a tattoo were around the lips, hands and abdominal region. Third, the more harsh the environment becomes such as tropical forests, isolated islands, and polar regions, the more number of females have tatoos. Fourth, women's tattoos were much less glamorous and smaller compared to those of men, distinguishing one's sex.

On the other hand, today's female tattoos can be classified as five symbols: masculinity, independence, voluptuousness, affection, and purity. These symbols contain women's mentality to pass the limit, and to overcome social inferiority. In modern society, where women must compete with men, it has become necessary for women to educe their potential masculine qualities. Being violent accessories for them, tattoos became a mark of such potential. Therefore, in the future, women's interest and demand for tattoos are expected to rise in proportion to the social demand of women's force.

Key Words: Tattoo(타투), Piercing(피어싱), Symbol(상징), Ornament(장식)

Corresponding author; Soo-Ran Bang
Tel. +82-10-2255-3386, Fax. +82-2-916-7039
E-mail: sooranb@hanmail.net

I. 서 론

오늘날의 액세서리는 개성표현의 수단으로써 의복에 견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액세서리는 현대 기술 발달의 산물인 핸드폰, mp3 등의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타투(tattoo), 피어싱(piercing)의 원초적 신체장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타투는 외부적 부착물을 통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인 피부를 통해 표현되는 직접적인 장식으로서 젊은 층 사이에 부활하고 있으며 여성 패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패션으로서의 타투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짧은 역사를 지니지만 민속학적 의미의 타투는 폭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기원은 고대에까지 올라간다.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의 원시사회에서 타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이 필요 없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부터 추위로 인해 온몸을 가려야 하는 북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대사회에서만 존재했던 원시적 장식은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단체의 멤버나 예술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타투의 형성은 단순한 점의 형태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연결되어 선을 이루고 반복되어 독특한 패턴을 형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문양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패턴일지라도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수없이 감수해야만 하며 비록 현대의 타투가 기계 작업으로 테크닉의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성인이 되기 위해 혹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능이 그것이었다. 반면 현대의 타투는 실질적인 목적대신 단순한 과시, 장식적인 역할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가학적 장식 속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간파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특히 남성들에게 한정되었던 타투가 현대 여성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은 여성들의 변화하는 의식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우리는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그 문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패션뿐 아니라 민속문화 분야에서도 타투에 관한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시작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의 타투 관련 선행 연구로는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 패션의 표현 특성'[1], 'Tattoo의 패션성에 관한 연구'[2], 그 외 타투의 문양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의복에 표현된 타투를 살펴봄으로써 패션학적 요소를 찾아내 문신의 예술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와 자료들은 남성 타투를 기준으로 한 특성 및 의미 분석으로 진행되었을 뿐 자료가 빈약한 여성 타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행해진 타투의 형태와 그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관심은 타투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의례의 본질적인 의미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투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여성들의 내재된 특성을 분석하고 여성 타투의 제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이로써 여성 장신구의 과격 현상과 갈수록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며 거칠어져 가는 여성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여성들의 차후 패션경향과 액세서리의 방향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연구자가 타투를 연구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피부를 통해 표현된 타투 예술이 신체 장식의 일부로서 옷의 연장선 역할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를 대변하고 특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방법은 타투의 개념 및 역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민속학적 여성 타투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고찰한 후 현대 여성의 타투에 나타난 상징과 비교하였다. 현대 여성의 타투는 인터넷과 잡지, 동호회 등을 참고로 조사하였다. 범위는 고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타투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북극지방을 포함하는 동서양 전반을 살펴보았다.

II. 타투의 어원 및 일반적 특징

1. 어원

타투는 피부의 파열부분에 물감을 새겨 넣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한 표식을 말한다. 타투에 해당하는 영어인 Tattoo는 남태평양 타히티 사람들의 말인 Tattaw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폴리네시아어로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 Ta-에서 온 것이다. 이는 아마도 동물의 뼈와 같은 뾰족한 도구에 염료를 찍어 피부를 콕콕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3].

Tattaw는 Captain Cook이 쓴 Otahitan인들의 관습에 관한 책에 등장함으로써 서양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문신의 어원은 Captain Cook이 1771년 남태평양으로의 첫 항해에서 돌아와 문신을 유럽에 전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오래된 기원이 있다. Cook의 첫 항해 이전에 이미 군인 역사가인 James Tuner경이 자신의 글에 'tattoo'라는 단어를 북을 두드린다는 군대 신호로 사용하고 있었다[4]. 여기에서 타(ta)는 사물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의성어(擬聲語)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두드리는데 상용되는 도구의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말케사스 섬에서 ta라고 불리는 도구는 톱니모양을 한 인간의 뼈로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의 ta는 길이가 3인치이고 형태는 찔러서 구멍을 만들기 위한 빗같이 작고 뾰족한 살이 여러 개 달렸고 날카로운 쐐기 모양이었다[5]. 문신을 뜻하는 라틴어는 스티그마(stigma)인데 현대 사전에도 그 본래 의미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웹스터 사전에는 'stigma'가 '뾰족한 기구로 찌름', '노예나 범죄인들의 살갗에 새김…자국', '오점'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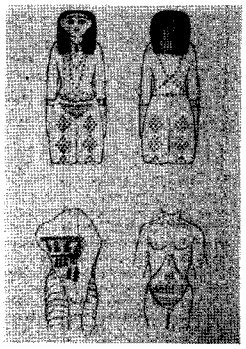
한자문화권에서는 문신이라는 이름 외에 입묵(入墨), 자자(刺字), 자청(刺靑), 경면(黥面)등 다양한 말로 사용되고 있다[7]. 찌를 자(刺)로 이루어진 자자, 자청이라는 말에 의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타투는 찌르기 방식이었으며 문양보다는 문자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상은 검은 먹색이 유일하게 사용되었으며 경면이라는 용어는 얼굴에도 타투를 했음을 시사한다. 동서양에서 나타나는 이들 어원은 타투가 공통적으로 찌르는 행위 자체를 묘사하거나 두들기는 소리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2. 역사

타투의 기원은 고대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 테베의 II왕조(기원전 2160-1994) 때 하토르 여신의 대여사제를 지낸 아무네트(Amunet) 미라에서 선명한 문신의 문양을 볼 수 있으며 아무네트와 같은 문양을 지닌 소상(小像)들이 다른 무덤들에서도 발견되었다[8]<그림 1>. 제사를 담당했던 대사제에게서 나타난 타투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높은 신분에 소속돼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집트에서의 타투가 개인적 취향이 아닌 사회적 특성을 띠며 지위의 상징이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타투의 대상에 여성이 포함돼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고대 문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타투는 이집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타투는 20세기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

북미의 인디언들과 고대 인디오문명을 이룩했던 마야족 사이에서 타투의 습관을 볼 수 있으며 아즈텍의 신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석상에도 타투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이 어느 시기부터 타투를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도처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흔적은 타투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일부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 중에는 현대까지도 타투가 공동체문화의 전통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부족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의 '싱구(Xingu)' 강 유역 부족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시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다[9].

아시아 지역의 타투는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동북,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고고학자 루덴코(S. Rudenko)가 몽골 서쪽에 있는 알타이 산록 고분에서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 미라를 발굴하였다. 미라가 발견된 무덤은 2천년 이상 된 알타이 추장의 묘로서 구조는 신라의 것처럼 적석묘였다[10]. 파지리크(Pazyruk)[11] 무덤군으로 알려진 이 유적은 기원전 8-7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



<그림 1> 이집트 타투, (상)死者의 신부,
(하 왼쪽) 아무네트 미라,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p.15.

<그림 2> 음바야족 여성,
Functions of dress, p.11.

에서 러시아 남부에 걸쳐 활약하며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스키타이 족의 양식을 띠고 있다. 유목 민족의 특성상 흑해 북안에서 내몽골 초원에 이르기까지 중앙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이동하며 그 문화적 특징을 남긴 스키타이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중국 등의 문화와 접촉하며 동서양의 교량역할을 한 민족이었다. 그리스와 아랍인, 중국의 일부 민족에게서 보이는 타투는 이러한 교류에 의한 문화의 유입, 혹은 유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분 형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은 신라와 알타이 지역 간의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기원전 4세기경 전국 7웅의 하나였던 연과도 교섭이 있었으며 몽고를 거쳐 유입된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와 교섭을 가지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연계성은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행해진 타투가 해양족속의 풍속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 외에 중앙아시아 기마민족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타투의 기원은 중국문헌인 [위지] 진한전(辰韓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녀가 왜(倭)에 가깝고 또 문신(文身)을 한다.' 마한전(馬韓傳)에도 '사내들은 이따금 문신을 한다.' 하였다[12]. 또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변한(弁韓) 편에는 '남자나 여자가 모두 왜와 같이 바늘로 몸뚱이에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13] 라는 기록이 있다. 위지와 삼국지에 따르면 타투는 한국 고대민속의 일부였으며 삼한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의 '왜와 같이'에서 일본도 이 시기에 이미 타투가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남성들이 화려한 문신으로 남성성을 표현했으며 문신 관습은 미얀마의 산(Shan)주, 라오스의 서부 등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14]. 이러한 타투 분포는 시베리아 북동에서 시작하여 일본과 한국, 타이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를 거쳐 일련의 연속성을 보이며 태평양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폴리네시아 지역은 그 어느 지역의 타투보다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성을 보여준다. 고대 폴리네시아 문신 문양의 가장 오래된 증거인 레피타(Lapita)[15] 도기와 비슷한 문양으로 장식된 소상(小像)들이 레피타 고고학 발굴지에서 문신도구들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어떤 것들은 3000년이 넘는다[16]. 따라서 태평양의 고대 민족 레피타족에 의해 시작된 타투가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로 이어지며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볼 수 있다. 18, 19세기 유럽인들이 항해하며 만난 원주민들이 여전히 타투로 뒤덮여 있었음은 태평양 지역의 타투가 고대이래로 수천 년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이어져왔음을 의미한다.

그리스와 로마 사가들에 의하면 브리튼족, 이베리아족, 골족, 고트족, 튜튼족, 픽트족, 스콧족들에게도 문신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안티오크의 헤롯은 서기 3세기에 브리튼족의 문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17]. 고대 이래로 유라시아를 비롯해 아메리카대륙, 아프리카, 폴리네시아, 북극지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타투는 이들이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의미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 나타나는 타투는 분명 일시적인 지역적, 원시적 야만행위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관습,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투가 이처럼 오랜 기간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장식의 차원을 넘어 필수 불가결한 특정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부족이나 종족에게서 보이는 타투는 개인의 취향이 아닌 부족 전체에 해당하는 사회적 행위였다. 따라서 그 대상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해당하였다. 리비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타투 미라가 모두 발견되었으며 마샬군도를 비롯한 뉴질랜드, 사모아,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족(Inuit)[18], 남아메리카 인디언인 음바야족 (Mbaya)[19] 등 다양한 민족의 여성들에게서 타투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이상과 같이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지역적 분포는 타투가 인류의 잠재된 본능의 자연스러운 표명이며 보편적 관습이었음을 설명한다.

3. 방식

1) 찌르기 방식

과거와 현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그림 3>. 바늘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문양을 따라 찌른 후 물감을 새겨 넣음으로써 무늬를 만들며 오늘날의 타투 머신에도 도입되고 있다. 기계의 경우 머신 끝에 달린 바늘에 색소를 묻혀 재봉틀처럼 바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피부를 뚫으며 색소를 피부 밑에 주입한다.

2) 꿰매기 방식

꿰매기 방식은 찌르기 방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색소를 묻힌 실을 바늘에 꿰어 피부 속으로 찔러 당겨서 모양을 새긴다. 이 기법은 오로지 그린란드(Greenland)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와 몇몇 북아메리카 인디언(North American Indians)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20]. 안정적 방법이긴 하지만 과정상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므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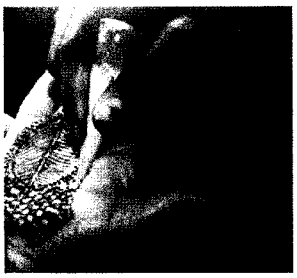
3) 흉터 방식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아문 흉터로 장식하는 방식이다<그림 4>. 검정 색소의 타투가 피부색과 구별 안 되는 어두운 피부색의 민족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다. 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며 길고 깊게 베어 상처를 만든 다음 상처 안에 색소를 넣는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피부를 도구로 찌르거나 자극을 주어 만들었다는 공통성을 띠며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 공포를 동반한다. 이는 기계를 이용한 현대식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고문을 가하는 듯한 가학적인 방식은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 자국을 남기고 있다.

<그림 3> 찌르기 방식, 싱구족,
아마존은 옷을 입지 않는다, p.293.

<그림 4> 흉터방식,
Functions of Dress, p.8.



<그림 5> 일시적 방식, 헤나,
Traditional Henna Designs, p.23.

4) 일시적 방식

오늘날 간단하고 일시적인 방식의 개발은 타투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용하기와 지우기가 쉬운 시트 형(sheet), 페인팅(painting), 식물을 이용한 헤나(henna)방식은 바디 아트의 개념을 넘어 패션으로 인지되고 있다. 헤나의 경우 피부에 색소를 스며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 식물성 염료를 피부 위에 착색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일시적인 장식의 개념이다. 타투와는 달리 통증 없이 타투의 효과를 줌으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애용되고 있다. <그림 5>는 콘(cone)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백(bag)으로 문양을 그리는 헤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원시 타투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이루는데 반해 헤나는 나뭇잎과 꽃잎을 위주로 한 식물 문양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헤나의 원료와 상관있는 특정 사물의 모양을 통해 행운을 기원하고자 함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영구적이면서 간편한 유형들은 타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여성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실제 타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 타투(temporary tattoo)의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는 한 타투에 대한 관심과 활용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문(入門)을 한층 쉽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4. 상징성

1) 주술, 종교적 의미

타투는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간주되었다. 세인트 로렌스 섬(St. Lawrence Island) 의 경우 흉골(胸骨) 위의 타투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샤먼의 치료법이며 양쪽 눈 위의 조그만 일직선 타투는 눈병 치료법으로, 그 밖에 몸 위의 여러 조그만 자국도 샤먼에 의해 가끔 치료제로 사용되었다.[21] 이들은 외부로부터 침투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악령이 타투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질병은 병원균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부터 기인하므로 약이나 의사의 물리적, 실질적 치료가 아닌 타투이스트(tattooist)에 의한 심리, 상징적 치료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시종교적 특성은 샤머니즘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병은 영혼의 상실로 간주되며 이를 치유하는 타투는 바로 샤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의식에서 비롯되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타투이스트의 위치는 영을 조절할 수 있는 무당의 존재로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술적 목적은 한국의 타투에서도 볼 수 있다. 치질에는 그 국부에 부친의 이름을 거꾸로 써서 입묵시키면 낫는다는 전북지방의 풍속, 전염병이 번지면 이마에 홍점(紅點)의 자점(刺點)을 찍는 강원도 지방의 풍습이 그런 것들이다[22]. 또한 피부에 직접 새기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몸에 붙이는 풍속 역시 주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처방들은 민간인들 스스로가 행했을 수도 있고 무당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중대한 경우일수록 무속인의 힘을 빌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신념과 무속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무당은 타투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주술적 의미는 병의 치유, 목숨, 생명과 연관된 가장 실용적인 목적으로써 인간이 소유하지 못한 마력을 부여 받고 한정된 자신의 존재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타투가 오랜 세월 지속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2) 가문, 종족의 표시

나이지리아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가문을 타 가문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얼굴에다 독특한 형태의 상흔을 하였다. 때문에 개개인의 소속 가문은 물론 출신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표시는 유사시 잃어버린 어린이와 친인척을 식별 가능하게 했다[23]. 타투는 종족의 주체성 및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가문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부족인 적과의 구

분이 가능했으며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 외부세계에 반한 단결을 표현했다. 한 구성원에게 새겨진 문양은 하나의 표본이 되어 다른 구성원에게도 새겨졌으며 구성원들은 타투의 흔적을 볼 때마다 사회적 일체감을 되새겼다. 타투의 시기는 종족, 부족에 따라 달랐으나 출생 직후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출생 후 받은 타투는 신분을 입증하며 공동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한다. 이는 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확고한 위치와 사회성이 새겨짐을 의미하며 개인성은 동일한 장식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게 된다. 타투의 시기가 빠르고 의식이 힘들수록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개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이러한 절차는 소속된 사회의 규율과 전통, 관습을 새김을 의미하며 타투가 사회적 특성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성년

타투는 성년 및 결혼 전후에 행해지면서 성인, 결혼의 유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구성원의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했다<그림 6>.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 타투가 성년식의 의례임을 발견할 수 있다. 타이 북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중 그 숫자가 가장 많은 카렌족에게 있어 문신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남자의 힘과 인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때 문신을 하지 않은 남자는 남편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24].

반 겐넵은 개인의 인생고비에 수반되는 의식들을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라 부르며 이를 분리(séparation), 전이(marge), 통합(agrégation)의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었다[25]. 그에 따르면 어느 체계이든 그 체계에서 발견되는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갱생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생이 사회적 영역에서는 통과의례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다. 신체의 일부가 찔리는 의례를 통해 타투의 대상자들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남겨진 타투 흔적은 이들을 이미 통과한 성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시킨다. 타투의 흔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때의 통합은 영구적이라 볼 수 있다. 타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엄숙한 의식으로 행해졌으며 환경이 거친 사회일수록 성년식의 과정은 어려웠다. 단순히 생리적 성숙만으로 성인의 특권과 의무를 가질 수는 없었으며 공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식이 요구되었다. 이는 비성적(非性的)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성적(性的) 세계로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과의례는 혼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투 행위는 성인의 자격, 결혼의 자격을 부여하는 통과의례로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단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4) 장식, 미학

타투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신체를 장식하는 미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 돋보이고자 하는 의식이 타투의 장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과거를 비롯하여 현대에 있어서도 타투의 의미 중 가장 근

<그림 6> 수단의 누바족 소녀,
신체장식, p.57.

<그림 7> 마오리 여성,
http://ngm.nationalgeographic.

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추코트 반도의 원주민인 추크치족은 적을 해치울 때마다 해치운 적의 숫자만큼 팔뚝에 점을 문신했다[26]. 따라서 추크치족 남성들 사이에서는 타투의 부위가 클수록 용감함을 상징했다. 부족간의 전쟁이나 사냥이 빈번한 환경에서 용맹과 힘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특성이었다. 타투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은 분명 남성답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며 남성들 스스로에게 이는 용맹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여성들에게는 매력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힘을 과시하는 타투는 남성들의 공격적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전달함으로써 여성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이점을 주었다.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마오리 여성들이 입술 주변에 하는 타투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말케사스 섬 여성들의 손에 새긴 타투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함으로써 좋은 아내감임을 나타냈다.

타투를 통한 장식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성의 시선을 끌지 못했을 것이며 그토록 가혹한 치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진 못했을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힘의 과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 되어가는 타투는 그 속에 내포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표현하듯 피부를 통해 표현된 관능미인 것이다.

5) 신분

타투는 새겨진 위치, 혹은 문양으로 신분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오리족의 경우 얼굴에 타투를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의 특권이었다. 이들에게 우아하게 타투된 얼굴은 권위, 명예를 상징하면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과거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형태의 의복과 직업, 동일한 가옥을 이루고 사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특정요소가 필요했다. 타투에 의한 장식은 힘과 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이들에게 육체는 재산과 부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 즉 타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

반면 피지배계층의 상징이기도 했다. 로마인들은 죄수와 노예들에게 타투를 새겼으며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탈영병, 수용소의 포로들에게 이와 같은 표시를 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역사 소설 삼총사(The Three Musketeers)는 유럽 사회에서 타투가 어떤 의미로 존재했는지를 제시한다. 아름답지만 부도덕한 여인 밀레디(Milady)의 어깨에는 백화의 낙인, 즉 죄인의 표시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타투는 한때 형벌의 일종이었다. 조선 예종조(睿宗朝)에는 절도범에게 경면형(鯨面刑)을 시행했으며 세종과 단종 2년에도 경면(鯨面)의 기록이 있다[27]. 형별의 흔적은 드러내기보다 감춰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문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기원이 되고 있다. 이상의 타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서 소외된 부류, 하층민, 범죄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사회적 구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타투는 문화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에서는 명예를 상징하면서 높은 지위의 인물에게 적용된 반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비롯한 하류계층에 제한되었다. 특히 서구사회와 아시아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가톨릭과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깊었다. 이는 어떤 기준, 어떠한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정 지역의 문화를 주관적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III. 지역별 여성 타투의 종류와 의미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남성들 사이에서 사라지면서 그 맥을 이어온 것은 오히려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성년식이 가장 중요한 의례로 신체의 많은 변형

이 이루어지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이 중요한 의례로서 타투도 이때 대부분 행해졌다. 특히 남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임, 출산에 관련된 주술적 목적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목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민속학적 여성 타투의 종류와 의미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1. 아프리카

여사제의 미라와 '사자(死者)의 신부들'이라 불리는 소상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타투가 여성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주술적인 이유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제는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로써 보통의 인간들과 차별화되는 표시가 필요했을 것이며 타투 의식은 이러한 구별을 위한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소상들 역시 사후세계의 동반자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문양은 우주의 원리를 표현하듯 점으로 얽힌 추상적 도형의 형태를 이룸으로써 해석할 수 없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나라만해도 수백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에서는 종족의 표시로 이용된 타투를 흔히 볼 수 있다.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타투 대신 아문 상처로 장식하는 입체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그림 4>. 북부 가나의 여성은 출생시 상흔을 새기며 카메룬(Cameroon) 여성의 얼굴에는 종족의 표시인 상흔이 있다. 또한 콩고의 보포토(Bopoto)족 여성들은 팔뚝과 복부, 힙에 융기된 상흔을 새긴다. 종족 구별의 필요성은 부족간의 전쟁이 심했으며 부족내의 결속이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표시는 아이를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어린 나이에 행해졌으며 우성의 유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테스트로서 일종의 출생신고식과도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 타투는 성년을 표시하면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높인다고 간주되었다. 수단의 누바(Nuba)족 소녀들은 사춘기 초기에 상흔 장식을 했으며<그림 6> 나이지리아에서는 성년식과 관련된 다산(多産)을 비는 의식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나이지리아 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는 신체의 하반부에 상흔(傷痕)을 했고 첫 임신이 되면 상반부에다 했다[28]. 성인식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했으며 특히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의 성년식이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다. 소녀들은 의식을 통해 여인으로서의 지식을 배우고 육체적 성장을 인정받았다. 성인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다산이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 공동체 사회일수록 많은 출산이 요구되었고 여성의 성적 매력은 다산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체에 새겨진 상흔은 신부의 매력지수를 상승시킴으로써 다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2. 서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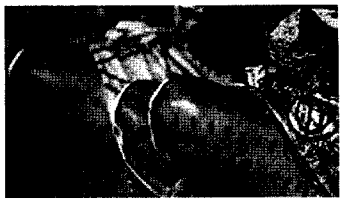
중동 지역의 문신은 고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졌다고 하지만 복식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여성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그에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요르단의 베드윈(Bedouin), 예멘(Yemen), 이라크의 샤마르족[29], 투르크멘족(Turkmen)[30], 예지드족[31]의 여성들이 복부와 허벅지, 발목 부분에 타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종족의 분포지를 볼 때 여성 타투는 서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35년경 이라크에 체류했던 스미튼의 기록에 의하면 아랍인들의 마술적 혹은 치료적 문신은 주로 여성들과 관계가 깊었다. 그 예를 보면 첫째, 아랍 여성들에게는 극히 중요한 사안인 불임을 치료하는 문신, 둘째, 아이들, 특히 아들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문신, 셋째, 사랑 혹은 매력이 샘솟게 하는 마법의 문신을 들 수 있다[32]. 이들 문신의 모양과 위치는 치료해야 할 부위와 관련이 깊다. 불임 치료의 경우 아랫배와 배꼽둘레에 위치하며 아이를 잃어본 일이 있는 여성은 그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코끝이나 배 아래에 점 하나를 새겼다. 또한 오른쪽 손바닥에 세 개의 점 문신을 새김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 타투는 아니지만 부적의 효과를 주는 일시적 방식도 유행했다. 헤나(henna)[33]는 일반적

<그림 8> 신부의 헤나 디자인, *Traditional Henna Designs*, p.14

<그림 9> 아이누 여성, http://www.ksc.Kwansei.ac.jp



<그림 10> 사모아 여성들의 허벅지 타투, http://www.pbs.org/skinstories/culture

으로 축제의 경우, 종교적인 의식과 특히 결혼식에 사용되었다. 공통적으로 손과 발에 장식했으며 이슬람과 Sephardic Jewish[34], 힌두교의 결혼식에서 신부들, 때론 신랑들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패턴으로 장식되었다[35]<그림 8>. 헤나를 주로 손과 발등에 했던 이유는 온 몸을 뒤덮은 옷으로부터 부적이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헤나가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이 식물이 의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헤나는 타박상, 두통, 인후카타르(sore throats), 링웜(ring worm)과 같은 피부병에 반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잎은 피부의 청량효과를 가져온다.[36]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능은 결국 질병을 몰고 오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음을 상징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은 헤나를 행운의 상징으로 인식하게끔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랍 여성들은 타투가 신체적 매력을 증가시키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3. 동아시아

북방의 시베리아 동쪽 추코트 반도에서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에 이르는 환태평양일대는 출산, 애정을 위한 부적으로서의 목적 외에 여성의 조건을 아우르는 자격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아이누 족은[37] 입술에 푸른색의 콧수염 모양을 문신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여자를 구별한다<그림 9>. 또한 같은 방식으로 손도 문신되어 진다. 손과 얼굴의 문신은 오로지 남편에 대한 성실과 의무를 의미한다[38]. 많은 종족 사이에서 여성의 입과 손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입은 음식의 간을 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손은 가사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새겨진 흔적은 인내심의 상징이며 타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여성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에게 충성할 좋은 아내감임을 상징한다. 이처럼 독특한 외양은 대외적으로는 일본 문화로부터 소수 종족인 아이누들을 구별하며 종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난산(難産)하는 여인의 발바닥에 하늘 천(天)자를 입묵시키면 안산(安産)한다는 평북 지방의 풍속이 있다[39]. 과거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였던 여성들에게 불임이나 난산은 크나큰 죄악이었으며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문의 중대사였다. 죄를 면하기 위해 갖가지 주술적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 타투는 침술과 연관된 의학적 방법이기도 했다. 바늘에 의한 출혈은 혈액, 혹은 기의 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서 출산을 돕는 역할을 했으리라 보이며 부적을 새기되 발바닥을 택함으로써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히 행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여성 문신의 형태는 애정의 맹세과정에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팔뚝에 새기는 '연비'라는 애정문신이 존재했다[40]. 남편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새기는 서아시

아 여성들과는 달리 한국의 여성들은 애인을 향한 일편단심을 약속하면서 혼전에 먹물을 들였다. 이는 상대방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주술적 수단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경우 씻을 수 없는 허물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에서도 유독 한국 여성들의 타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중국에서는 타투가 여성의 나이, 결혼여부와 같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자격 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남서부 하이난도(海南島)에 거주하는 리 족의 경우 12, 13세에는 얼굴만을 물들이고 16, 17세가 되어 출가하면 가슴에 문신을 하고, 20여 세가 되어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녀자들은 신체의 비밀스러운 곳에 문신을 한다[41]. 따라서 리족의 경우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문신이 있으면 유부녀임을 알 수 있다. 얼굴의 타투는 성년이 되어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출가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회적 약속으로서 혼전 여성들에겐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연령에 따라 중요시되는 신체 부위의 변화는 비성적 세계에서 성적 세계로의 전이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한편 타이완 고산족 여자의 경우 얼굴문신은 무늬가 놓인 상의를 다 짠 후 얻을 수 있는 자격이지만 가슴과 팔, 그리고 다리의 문신은 베짜는 기술이 탁월하거나 새로운 꽃무늬의 베를 짜는 기술을 발명한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42]. 자급자족하는 부족에게서 여성의 기술은 재정적 안정을 의미하며 배우자 선택시 선호되는 조건이었다. 솜씨를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는 자격증을 종이가 아닌 피부에 새기도록 하는 관습을 만들었다. 많은 부위가 타투될수록 여성의 가치는 올라갔으며 이는 곧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즉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화권에서는 타투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드러내야 할 표식이었던 것이다.

4. 태평양

태평양의 타투는 타 지역에 비해 아름답고 정교한 문양으로 유명하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문양은 무엇보다 장식의 목적이 우선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이는 샤먼, 종교적 행위와는 구분되는 태평양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즉 남녀 모두에게 행해진 일반적인 신체장식이었으며 미학적 개념이었다. 마샬군도를 비롯하여 피지, 타히티, 보르네오의 롱 웨(Long-Wai)족, 카얀족(Kayans) 여성들은 허벅지와 발, 손등에 타투를 했으며 특히 사모아 여성들의 허벅지 타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 10>. 이들에게 타투는 현대인의 의복과도 같이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몸치장이었으며 메이크업이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여자들은 주로 입술주변과 턱에만 했으며, 붉은 입술을 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술에 푸른 문신을 했고, 드물게는 이마나 코 주변에 작은 형태의 문신들을 더하였다[43]. 마오리인에게 문신장식이 없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임을 뜻하며 문신을 하지 않은 얼굴은 추한 얼굴로 간주되었다[44].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 문신은 일련의 의식을 행하면서 시작했으며, 그 사람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45]. 마오리 문신은 폴리네시아 타투의 실로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타투를 한 여성은 높은 신분에 있는 묘령(妙齡)의 여성임을 상징한다<그림 7>. 또한 그들의 푸른 입술은 짐승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며 아름답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이는 맨 얼굴을 치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으며 마치 립스틱과도 같이 여성의 입술을 돋보이게 하였다. 아울러 여성들은 문신이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을 방지하여 젊게 한다고 믿었다[46].

타투는 새겨진 부위와 면적에 따라 성을 구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마르케사스의 소녀들은 입술주변과 귀 뒤, 팔과 손, 허리아래 복부를 문신한 반면 소년들은 눈꺼풀과 혀를 포함한 전신을 타투했다[47]. 신체의 모두가 허용된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의식도 특별히 갖춰지지 않았다. 남성들이 전신의 타투를 통해 용맹과 영광의 과시용 목적으로 활용한 반면 여성은 손에 타투를 새겨야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의 상징 역할을 했다. 비록 여성의 타투는 제한점이 있었지만 소녀에게는 여성다움을 소년에게는 남성다움을 부여하면서 폴리네시아의 타투는 수천 년에 걸

친 문신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5. 아메리카

북아메리가 원주민들의 타투는 영혼을 믿는 종교적 행위와 결합돼있다. 따라서 사후세계와 악령퇴치등과 관련해 타투를 행하며 다양한 부족, 씨족들간의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북미의 인디언인 하이다(Haida)족은 북아메리카 원주민중에서도 뛰어난 예술 감각을 지닌 부족으로서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혈족은 토템으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을 섬기고 있다. 부족원들은 팔과 손에 비이버나 늑대, 독수리 등 그들의 토템을 새겨 넣어 다른 부족과 구별 지으며 결혼은 어떤 부족과도 할 수 없다[48]. 북미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타투의 유무는 거론할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타투는 의례 해야 할 장식이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양이냐였다. 문양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관련이 있으며 부족원을 보호해주는 신성한 것이기도 했다. 문장(紋章)이기도 한 타투의 문양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다른 종족과의 구별, 남녀의 식별을 가능하게 했다.

아메리카 여성들의 타투는 남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포를 보이며 그 목적도 다양했다. 마야 여성들의 문신은 남자들의 문신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브라질의 카두베오족(Caduveo) 여성은 얼굴과 상체 대부분에 타투를 했다<그림 11>. 아마존의 싱구족 소녀는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팔뚝에 서너 줄을 가로로 긋는 '따뚜아쟁' 의식을 치른다[49]<그림 3>. 이처럼 종족의 표시, 성별, 성년식, 종교적 목적 등에 의해 새겨짐으로써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을 띠고 있었지만 부족에 따라서는 타투가 그저 일반적인 자부심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6. 북극지방

북부지방에서는 에스키모로 알려진 이누잇족을 비롯해 세인트 로렌스섬의 유피겟족, 캐나다 북부, 그린랜드, 시베리아의 여성들 사이에서 타투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에스키모 여성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무엇보다 독특한 형태로 턱 타투를 들 수 있다<그림 12>. 이는 여성이 사춘기에 도달했다는 징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성숙을 의미하는 의식의 일부로 새겨졌다. 베링 해협에 있는 디오메데 섬에서는 여성들의 턱 줄무늬 문신이 아내 선택의 지표였다고 한다. 인류학자인 보고자 플랜스키에 따르면 "여자가 웃음이 헤프면 그 줄들이 퍼져나가 병을 앓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턱에 한 벌의 완전한, 즉 전부 가느다란 줄 문신을 하고 있는 여성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장래의 좋은 아내감으로 여겨졌다."[50] 이러한 자료는 북극지방에서의 미의 기준이 척박한 환경에 의해 독특하게 정립되었음을 설명한다. 열심히 일하느라 웃을 겨를이 없었던 여성들은 가느다란 줄무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처럼 진지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이들 사회에선 요구되었고 동시에 이상형이었다.

부적으로서의 타투는 원시종교를 갖는 지역

<그림 11> Caduveo tattoo, http://www.blingdomofgod.com/tattoos.

<그림 12> 캐나다 이누잇족, 1916년, http://www65.statcan.gc.ca/acvb05

<그림 13> 뺨 타투를 한 추크치 여성,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p.293.

<표 1> 여성에게 나타난 타투와 상징성

구분	종족	타투의 형태 및 위치	상징
주술	이집트 여사제	가슴, 복부에 기하학적 문양	신성
	이라크	아랫배와 배꼽둘레	불임치료
		오른쪽 손바닥에 세 개의 점	사랑의 유지
	인도, 서아시아	신부의 손 및 발, 입	행운의 기원, 악령으로부터 보호
	한국	난산시 발바닥에 입묵	안산의 기원
		연비	애정의 맹세
	시베리아 추크치족	뺨에 세 줄의 선	불임치료
종족	북부 가나	출생시 상흔	종족의 표시
	카메룬	얼굴에 상흔	종족
	북미 하이다족	토템, 문장(紋章)	씨족
성년	아마존의 싱구족	14세 때 팔뚝에 가로줄	성인식
장식	수단의 누바족	사춘기 초기 배와 등의 상흔	성적 매력
	나이지리아	결혼 전 신체의 하반부	성적 매력, 다산
	요르단, 예멘, 이라크	복부, 허벅지, 발목	매력증가
	뉴질랜드 마오리족	입술 주변과 턱	미(美), 주름방지, 젊음의 유지
	사모아	허벅지	미(美)
결혼 여부	중국 리족	12-13세 얼굴, 16-17세 가슴 20여세 신체 하반부	연령, 결혼의 여부 표시
가사 능력	일본 아이누족	입술, 손	남편에 대한 성실과 의무
	타이완 고산족	얼굴, 가슴, 팔, 다리	베 짜는 능력
	마르케사스	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격
	베링해 디오메데섬	턱 줄무늬	아내 선택의 지표
성별	마르케사스	입술주변과 귀 뒤, 팔과 손, 허리아래 복부	여성의 상징
	북미 하이다족	가슴, 어깨, 팔, 손, 무릎에서 발목에 토템	여성의 상징

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이가 없는 추크치(Chukchi)[51] 여성들은 세 줄의 등거리 선을 양 뺨에 빙 둘러 새겼는데 이것은 불임에 대한 일종의 부적이었다[52]. 여성에게 무엇보다 심각한 치료의 대상은 불임이었으며 타투를 통해 악령을 퇴치함으로써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12, 13>은 얼굴이 타투된 북극권의 여성들을 보여준다. 여성다움으로 간주된 턱 줄무늬는 아이러니하게도 웃을 수 없게 만드는, 여성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족쇄였다. 추위로 인해 얼굴만이 드러나는 복장에서 가려진 신체 부위의 타투는 장식의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원하는 주력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은 각 지역의 여성에게 나타난 타투의 종류와 의미를 비교한 것이다. 여성 타투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술, 장식, 가사능력의 상징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출산, 애정 문제를 주술의 힘을 빌어 풀고자 했으며 특히 불임은 중요한 치유대상이었다. 둘째, 많은 종족의 여성들이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

으로 타투를 장식했는데 이는 결국 성적매력을 유발하여 다산과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출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좋은 아내의 척도는 종족마다 달랐지만 이를 인증하는 방식은 타투로서 문신의 유무, 보존상태의 정도 등을 아내선택의 지표로 삼고 있었다.

여성 타투의 위치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부위는 입 주변과 손, 복부였다. 입은 얼굴의 부위 중에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간주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눈과 코의 문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푸르게 타투된 입술은 립스틱을 칠한 듯 한층 완성된 미를 자아냈으며 현대의 메이크업과 같은 개념이었다. 손은 가사일과, 복부는 출산과 관련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었다. 지역별로는 열대 지방의 정글, 고립된 섬, 북극 주변에 사는 민족일수록 여성들의 타투가 많았으며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는 부족도 있으며 남성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라기보다는 남녀가 평등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보호의 대상일수만은 없었으며 타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강인함의 증거였다.

여성 타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고 좁은 부위를 새겼으며 이로 인해 성의 구별을 할 수도 있었다. 임신과 가사능력에 관한 의미는 남성 타투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들만의 특징이며, 애정의 맹세나 유지를 위한 타투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태어난 직후, 사춘기, 결혼 전후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족의 규정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IV. 현대 여성 타투의 상징성

현대의 타투는 과거와 같은 주술적 의미, 의례, 신분의 표시기능은 없다. 과거, 획일화된 문양 속에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현대의 화려한 문양 속에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현대인은 타투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행하며 선택된 문양은 개체의 내면적 특성 내지는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현대 타투에서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들의 타투다. 지금까지 남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타투가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액세서리를 대신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 내면의 의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미용 개념으로서의 타투는 성형효과를 주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러한 반영구적 형태는 오늘날 여성들 사이에서 보이는 영구적 타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형태면에 있어 과거의 여성 타투 패턴이 간단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단색의 기하학적 문양 내지는 대상의 단순화에 지나지 않는 반면<그림 10>, 현대 여성의 타투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특정 사물의 형태를 정밀하게 묘사한다. 스타일은 트라이벌(Tribal), 블랙 앤드 그레이(Black & Grey), 컬러(Color), 이레즈미(Irezumi), 셀틱(Celtic) 등이 있으며 문양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문자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정경희, 이미숙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양은 별, 나비, 요정, 용, 꽃+나비, 트라이벌, 문자, 장미의 순으로 나타났다[53]. 과거의 막연한 기원이 추상적 형태로 표현됐다면 이처럼 정형화된 형상은 보다 구체적인 상징을 지닌다. 문양을 선택한 개인의 취향과 의도가 깃들어있으며 무언의 주장,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인터넷, 잡지를 통해 현대 여성의 타투 속에 주로 나타나는 문양을 분류하면 <표 2>와 같으며 그 속에 투영된 상징적 의미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성성

타투는 여성들의 잠재된 강인함, 폭력성을 표명한다. 과거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의 생존능력을 증명했던 여성들은 오늘날 남성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냉철함, 용기, 적극성을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무의식중에 공격적인 장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남성적인 강인함은 폭력, 질투, 적대적 파별의 형성을 비롯하여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심리를 포함한다. 여기서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은 아니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심적, 정신적 측면으로서 화, 논쟁,

규칙의 무시, 원망, 충동적 분노표출, 착취적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나며 언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상처를 남긴다. 여성다움의 정의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타투는 억제되었던 본능의 상징적 표현으로 여성들의 증대하는 도전 심리와 진취성을 반영하고 있다.

2. 독립성

현대의 여성들은 과거 부모, 남성에게 귀속하여 복종하던 관습을 버리고 하나의 자치적인 존재로서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성향은 날개를 가진 새의 모양, 변태를 하는 곤충의 문양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한 기능이 없는 유충이 생식 능력을 가진 성충으로 변형되면서 개체의 활동 범위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뀐다. 이는 무능력한 존재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의 변환을 의미하며 비성적인 존재에서 성적인 존재로, 제한된 삶에서 무제한의 삶을 의미한다. 비상(飛翔)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탈바꿈을 상징하며 더 이상 의존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 주체, 남성과 동등한 개체로서의 추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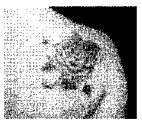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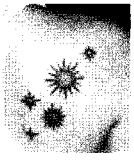
3. 관능미

여성들은 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투를 하며 이는 과거나 현재의 여성들에게 있어 변함없는 원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강렬한 육체적 자극은 쾌락과 연결되기도 한다. 타투는 감각을 자극하여 미를 표현하는 관능주의의 대표적 형태라 볼 수 있다. 타투의 행위자체가 관능미와 연결되며 암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욕망을 환기시킨다. 꽃과 나비의 관계,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꽃 등은 음양의 조화를 상기시키며 상상, 이미지에 의한 본능을 승화시킨다. 타투의 위치는 과거 중요시되었던 얼굴, 손, 발 등의 신체 가장자리에서 허리둘레, 어깨, 팔뚝, 등, 가슴의 보다 중심부로 이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러한 위치는 노출이 많아진 현대 복식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보일 듯 말듯 한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시선을 자극하며 도발적 아름다움을 유발하고 있다.

4. 애정

가학적인 타투와 낭만은 서로 상반된 특성을 띠지만 동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애정의 종류는 이성간의 사랑이나 동경하는 인물, 스타와 같이 유형의 대상일수 있으며 예술, 스포츠와 같은 무형의 대상을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다. 이성간의 애정표시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특성으로 애정의 과시, 확인을 목적으로 대상의 이름이나 이니셜, 상징적 문구를 새기며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누군가에게 소속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소유하고자 하는 능동적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두 개체 사이의 결속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충성, 일편단심에 대한 무의식적 강요로 정의된다. 조선시대의 연비가 개인 간의 은밀한 비밀로 지켜졌다면 현

<표 2> 현대 여성의 타투에 나타난 문양과 상징성

상징	문양	형태
강인함	용, 전갈, 독수리, 호랑이, 사슬, 해골, 거미, 말, 트라이벌, 닻, 칼, 총, 잉어, 거북이	
독립성	나비, 잠자리, 천사의 날개, 날개 달린 여인, 연꽃, 깃털, 비둘기, 백조, 봉황	
관능미	꽃과 나비, 여자, 고양이, 장미, 가시덩굴, 매화, 백합, 당근, 체리, 포도	
애정	문자, 이름, 이니셜, 하트, 심장, 큐피트, 화살	
순수	별, 요정, 해, 달, 천사, 아기, 초승달, 만화 캐릭터, 부처, 네잎 클로버, 유니콘	

대의 타투는 과시를 통해 소속감을 인지시키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촉구한다.

5. 순수성

순수성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안, 고독, 소외감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욕망의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틀에 동일화하려는 사회체계에 대한 불만, 반항의 상징적 기호이기도 하다.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의 동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순수함을 일깨우는 자극제이며, 변함없는 자연과 우주적 모티브는 내추럴함의 무한한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또한 종교적 심볼은 속세(俗世)와는 분리된 성계(聖界)를 상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경과 지워지지 않는 타투의 특성처럼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소속의 추구를 의미한다. 이상의 형상들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현대의 의학 발달은 출산을 위한 타투의 주술적 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글로벌화는 종족의 표시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적 기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타투가 남성들 사이에서 보다 확산되었던 것은 여성들에겐 참기 어려운 고통이기도 했지만 무모한 힘의 과시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의 과시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에서 타투는 무의한 장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여성들의 타투는 현대 사회의 여성상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은 강인함, 적극성, 자치적인 특성을 드러내야 하며 이러한 지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성들의 외양을 통해 남성스러운 복장,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장식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옷 속에 타투를 감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문양은 귀여움을 넘어 도발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차후 타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수요는 사회가 여성들의 힘과 능력을 요구할수록 이와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본래의 한계를 넘어 패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타투가 야만적, 원시적 행위라는 편견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화려한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V. 결 론

다양한 지역과 민족에 걸쳐 현대까지 맥을 이어온 타투는 인류 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각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특정한 집단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족과 지역에서 발생하여 독특한 상징을 지니며 지속되어왔다. 피부에 상처내지는 흠집을 내는 행위인 타투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장식으로서 심한 통증과 부풀어 오름, 감염이나 켈로이드[54] 형성 등 각종 합병증 및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상의 고통과 영구적인 특성으로 인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장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타투가 확산되었던 이유는 개인정보의 표현수단 및 치료와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속학적 여성 타투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첫째, 주술, 종족, 성년, 장식, 결혼여부, 가사능력, 성별의 표시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술, 장식, 가사능력의 상징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출산, 애정 문제를 타투의 주술에 의존했으며 미학적 기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가사능력이 타투로 표현됨으로써 좋은 아내의 척도가 되고 있었다. 둘째, 문양은 점,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이 주를 이루며 위치상 가장 빈번히 나타난 부위는 입 주변과 손, 복부였다. 입은 얼굴의 부위 중에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간주되었으며 손은 가사일과, 복부는 출산과 관련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었다.

셋째, 지역별로는 열대 지방의 정글, 고립된 섬, 극지방과 같은 거친 환경에 사는 민족일수록 여성들의 타투가 많았다. 넷째, 여성 타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고 좁은 부위를 새겼으며 이로 인해 성의 구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족의 규

정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사회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오늘날 타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가 아닌 개인적 취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타투라는 미명아래 확산되면서 단지 미적 기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구적이든 일시적 방식이든 선택된 문양의 형태는 개인의 무의식적 특성을 반영한다.

현대 여성들의 타투 형태에서 반영되는 상징성은 남성성, 독립성, 관능미, 애정, 순수함의 다섯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열등감을 극복하고 초월적인 다른 세계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있다. 남성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능력과 능동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역으로 사회가 강인한 여성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들은 환경의 요구에 발맞춰 변해가고 있으며 현대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타투는 남성 상징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여성들 내면에 억제되었던 잠재된 특성의 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국 파타야의 '세계문신축제'와 같이 타투는 이제 패션 관광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긍정적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정된 표현수단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복식 외에 새로운 자기표현의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존속해왔던 타투는 현대인의 호기심을 충족하며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윤정혜, 유영선 (2001).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 패션의 표현 특성. *복식 51(3)*, pp.88-98.
2) 정은숙, 김향수 (2003). Tattoo의 패션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p.154-169.
3) 조현설 (2003).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 p.55.
4) 이진명 (2005). *영구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실제*. 서울: 여문각, p.5.
5) Ebin, V. 임숙자 역 (1988). *신체장식*. 서울: 경춘사, p.83.
6)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타투, 금지된 패션의 역사*. 서울: 르네상스, p.19.
7) 이동철 (2007). 한국 문신민속의 양상과 특징. *한민족문화연구 22(8)*, p.336.
8)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14.
9) 정승희 (2006). *아마존은 옷을 입지 않는다*. 서울: 사군자, p.258.
10) 김병모 (1999). *김수로 왕비의 혼인길*. 서울: 푸른숲, p.168.
11) 카자흐스탄에 있는 스키타이인의 묘지.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볼쇼이울라간 강 유역과 이어져 있다. 5개의 큰 둔덕과 이보다 작은 9개의 둔덕으로 이루어진 이 묘지는 BC 5-3세기의 유적으로, 오늘날 스키타이 인이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 어떤 관습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자료.
12) 이규태 (2000). *한국인의 민속문화 III*. 서울: 신원문화사, p.195.
13) 조현설 (2002). 동아시아 문신의 유래와 그 변이에 관한 시론. *한국민속학 35*, p.153.
14) Conway, S. (1992). *Thai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pp. 111-113. Recite from, 홍나영 외 (2004). *아시아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p.86.
15) Polynesia, Micronesia 문화와, Melanesia 일부 지역의 공통의 조상이라 추정되는 고대 태평양 문명의 이름. 뉴칼레도니아 지방언어 '구멍을 파다'라는 뜻의 *xaapeta*를 오문(誤聞)하여 lapita가 됨.
16)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 28.
17) Scutt, R.W.B. & Gotch, C. (1985). *Art, Sex and symbol*. London: Cornwall Books, p.26. Recite from,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21.
18) 에스키모들이 그들 스스로를 부르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이누이트'에서 온 명칭.
19) 음바야족. 파이쿠루(Guaycuru), Eyiguayegui

라고 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에 걸쳐 있는 차코 지방에 살며 과이쿠루어를 쓰는 남아메리카 인디언.

20) Storm, P. (1987). *Functions of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p.12.
21)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295.
22) 이규태 (2000). Op. cit., p.196.
23) Ashiwaju, G. Enem, E.U. Dputa, S.O. 황춘섭 역 (1993). *나이지리아인의 신체장식과 의복*. 서울: 경춘사, p.9.
24) Diran, R. K. (1999). *The Vanishing Tribe of Burma*. London: sevendials, Cassell&Co., p.124. Recite from, 홍나영 외 (2004). Op. cit., pp.268-269.
25) Gennep, A. V. 전경수 옮김 (2000).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p.8.
26) Reid, A. 윤철희 옮김 (2003). *샤먼의 코트*. 서울: 미다스북스, p.301.
27) 이규태 (2000). Op. cit., p.198.
28) Ashiwaju, G. Enem, E.U. Dputa, S.O. 황춘섭 역 (1993). Op. cit., p.10.
29) 이라크에서 가장 강력한 수니파 부족. 쿠웨이트와 사우디, 요르단 등 다른 아랍국까지 퍼져있음.
30) 투르키메니스탄의 주요민족. 중앙아시아의 각지, 북캅카스,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도 거주함.
31) 이라크 북부지방에 걸쳐 사는 쿠르드족의 한 지파.
32)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229.
33) Lawsonia, inermis, hina, mehndi는 라틴 이름이며 아랍, 힌두이름은 북 아프리카, 중동,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흰색 꽃이 달린 상당히 큰 식물을 가리킴.
34) 스페인·포르투갈 계의 유태인.
35) Dorine, V.D.B. (2002). *Traditional Henna Designs*, Amsterdam: The Pepin Press, p.11.
36) Ibid., p.11.
37)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토착 원주민. 피부는 누른빛이 적고 검은빛이 많은 편이며 눈은 쌍꺼풀에 우묵하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귀는 비교적 크다. 머리카락은 검고 파상(波狀) 또는 구상(鉤狀)이며 남녀모두 털이 많아 최다모(最多毛) 인종에 속함. 남녀가 귀걸이를 달고 있으며 여자는 문신을 하고 의복은 난티나무 껍질의 섬유로 짠 옷감을 사용.
38) Ebin, V. 임숙자 역 (1988). Op. cit., p.48.
39) 이규태 (2000). Op. cit., p.196.
40) 이동철 (2007). Op. cit., p.335.
41) 조현설 (2003). Op. cit., p.53.
42) 戴平 (1994). *중국복식문화*.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p.24. Recite from, 조현설 (2002). Op. cit., p.163.
43) Barrow, T. (1984). *Maori Art*, Reed Books, p. 83. Recite from, 황춘섭, 정현주 (1995). 마오리족 전통복식과 문양고찰. *복식문화연구 3(2)*, p.258.
44) Sinclair, D. (1964). *Decorative Art of New Zealand Maori*, Reed Books, p. 76. Recite from, Ibid., p. 257.
45) 황춘섭, 정현주 (1995). Op. cit., p.257.
46) Ebin, V. 임숙자 역 (1988). Op. cit., p.83.
47) Storm, Penny. (1987). Op. cit., p.12.
48) Ebin, V. 임숙자 역 (1988). Op. cit., pp.35-36.
49) 정승희 (2006). Op. cit., p.292.
50)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p.291-292.
51) Chukchee라고도 쓰며 Luorawetlan이라고도 함. 러시아 연방 시베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추크치 자치관구에서 사는 종족.
52) Gilbert, S. 이순호 옮김 (2004). Op. cit., pp.292-293.
53) 정경희, 이미숙 (2007). 타투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나타난 타투 문양 분석. *한국복식학회지 57(3)*, p.10.
54)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 조직이 상처 부위를 벗어나 주위 다른 피부에 두껍고 딱딱한 흉터가 자라는 것.